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86호 현대불교  
2008년 7월 2일(음력 5월 29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 여러분, 한 철 살기에 우리 사람답게 삽시다!

### 전설의 고향에 대해서

**문** 요즘 Cable TV를 통해서 예전에 방영됐던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을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만의 얘기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신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이 세상만물에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고 형상이 변연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부하는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남을 해치지 않고 도와주면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 수 있는건지요?

**답** 전설의 고향을 짚들 보시지만 그건 전설의 고향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앞뒤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시지 과거에 산 것은 현실이요 현실에 사는 건 미래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포천 어디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큰 구렁이가 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두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신문에 나고 모두 야단들이 나왔거든요. 한 30년 전 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마 30년 더 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군인들이 사단 사단이 그냥 무지하게 거기 주둔해 가지고 천막을 치려고 전부 그 산을 뒤엎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노인네더러 꿈에 "내가 지금 도를 두고 있는데 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내가 다 해. 끝나. 그러니까 사흘만 말미를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 좀 해 달라." 하고 노인네더러 그렇게 부탁을, 애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내 몸을 딛 데로 옮길 테니까 사흘만 말미를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니까 군인들은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 이틀날 또 꿈을 꿔서 또 가서 얘기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 이틀날, 사흘 되던 날은 아주 간곡히 얘기해서 가서 대장더러 얘기를 하니까 군인이 그런 미신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그러고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웬걸 그때 천막을 치고 거기서 전부 지는데 밤에 그냥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비가 오는 줄도 모르게 와 가지곤 그냥 산이 몽그러져 가지고 전부 일망타진됐어요. 그냥. 근데 그 애원하고 애원하고 별별 꿩고 꿩고 빈 그 노인네 논란 그대로 요렇게 산이 무너져 가지고 막아 주고, 그 집만 막아 줬지, 딴 집들은 다 그냥 무너졌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즉 말하자면 예전부터 원 노릇을 하다가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남의 것을 갈취를 했기 때문에 구렁이가 왜 가지고 거기서 내내 있다가 나중에 개심을 하고 천 년을 거기서 이슬

을 먹고 이파리만 따 먹고 그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해치지 않고 천 년을 채우려면 사흘 남았는데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으니 그 동네 일편이 다 그렇게 된 건 그렇게 된 거지만 군인들이 몇백 명이, 아니 그때 몇백 명보다도 그, 숫자는 다 모르겠어요. 사단이 몇이라니까, 아주.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현상을 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겪어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의식이 욕심이나 아집이나 탐심, 남을 타하는 투기,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다면 안 되죠. 인생은 가랑잎과 같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래도 인간이라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저런 나뭇가지보다도 못한 때가 많아요. 가을이 돼서 나뭇잎이 다 떨어져도 그 가지는 벌벌 떨면서도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조금도 해치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말입니다. 그 한 철 살기 위해서, 나그네 생활로 한 철 살기 위해서 남을 얼마나도 해칩니까. 꼭 해친다고 해서 해치는 게 아닙니다.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그렇게 해칩니다. 거짓말 한번 하다가 보면 그걸 속이기 위해서 백 번은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이게 부처님이 가르친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세 생생을 끄달려야만 하는 그런 이치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목은 빛 같아야 할 것도 못 갖고 자기 욕을 날아 준 부모까지도 해를 입고 자식까지도 해를 입게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자제치 모르실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십시오. 우리가 밥을 얻어먹고 돈벌이를 해서 살 양으로 며칠 깔고 이 중웃을 입은 게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하루 한 끼니 두 끼니 아무것도 배 채우면 살 것을 왜 구해야 그렇게 해서 삽니까! 그렇게 부처님의 이름을 속이고 부처님의 뼈대귀를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여기 와도 부처님의 고집덩어리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일체 조상들의 고집덩어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그 아리따운 마음을 꿰뚫어서 내 마음과 돌이 아닌 마음을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배풀라는 거지요.

여러분! 부처님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알고 가는 것이 다 부처님 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처님 법이고 내가 부처님 법을 행하고 있고 내 가정이나 살아가는 게 부처님 법 아니고 무엇인가. 내가 한 걸음 걷고 말하고 움직여서는 게 다 부처님 법이니 이것이 참선이 아니고 무엇이며 이것이 바로 나를 발견하는 재료구나. 부딪치는 게 다 재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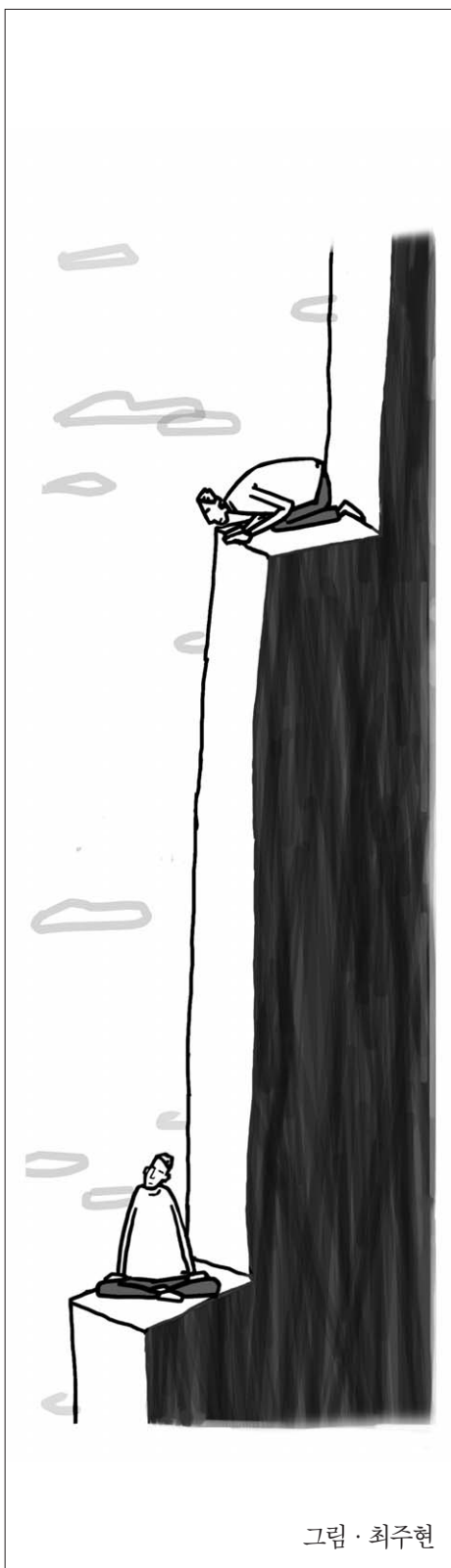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태양의 근본과 인간의 근본

**문** 태양의 근본이 인간의 근본과 돌이 아니라 하나라고 법론 중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시간도 공간도 크고 작음도 없이 모두가 하나라는 말씀이신지요?

**답** 내가 '태양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다' 하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의 체가, 예를 들어서 태양의 그 뜨거운 속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타 죽고 없지 않아요? 물질이라는 건 그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불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모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도 바로 그것입니다. 태양계의 모든 생명이, 아니 체 없는 생명이 모습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게 뜨겁겠습니까? 그것은 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따뜻한 태양 빛을 내리쬐어서 만물을, 곡식을 익혀서 여러분 입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온화하고 따뜻하다면 만백성을 다한 팔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생각을 잘 낸다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광대무변한 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도 우리는 좁은 마음으로 뛰어넘지 못하고 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이 지구에서도 지금 인간이 되려고 무척 애쓰는 게 있습니다. 모습을 차츰차츰 바꿔 가면서 가다가 보니까 인간을 봐야만 자기가 그 모습을 타고나겠기에 인간을 납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납치해서 그 모형대로 그걸 봤으면 바로 자기 몸을 그대로 진화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은 있으나 바로 봐야, 먹어 봐야 또는 들어 봐야 모든 것을 알겠기에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서로 경쟁으로써 발전을 이룬 겁니다. 우리 인간 되는 것도 경쟁을 해서 인간이 됐고 지금 살아나가는 것도 경쟁을 하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량이라는 자체, 우주 전체의 한도량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경쟁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저쪽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고 저쪽에서는 이쪽 것을 수집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지금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세계적인 문제에서도 이 나라에서 저 나라를 먹으려고 하고 저 나라에서 이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경쟁 속에서 우리는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내의 우리 사정은 더 치열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 한생각

이 그렇게 넓고 묘하고 또 생동력 있게 나갈 수 있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대인이라면 우리는 앉아서 호국불교를 할 수 있고 앉아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앉아서 우주에 상응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몸이 나서서 호국불교를 하고 우주에 상응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하나가 지금 미국을 가려 해도 그렇고 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뚱이가 다니면서 불교를 펴는 시기는 벌써 지났습니다. 한생각으로써 우주를 둘러쌀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인간 하나하나에게 더불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광대무변한 이 법을 상실하고 배척하고 자기 자신의 그 광대한 능력을 아주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멀리 안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이끌어 온 그 은혜를 잊고 있는 거고 또 자기 능력을 아주 포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주 대전세계로부터 우리 모두가 이렇게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미생물로부터 큰 짐승으로 이렇게, 물에서도 나고 화(化)해서도 나고 그 후에는 알로 낳고 태로 낳고 태로 낳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거죠.

비유를 해서 지금 지구에서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인공위성을 띄운다, 우주정거장을 세운다' 이라는 문제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지 않고 무허가로서 우주에 상응도 하지 않고 회의도 안 하고 서류도 올리지도 않고 우주정거장을 세운다면 우주정거장은 파괴될 수 있는 우리가 실증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인 문제가 거론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그 섭리에 서로 상응을 할 줄 모른다면, 바로 회의를 하지 않고 무시하고 들어가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뜻을 모르거든요.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 바깥으로 권위를 쥐고 있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것은, 부딪치면 부딪치는 대로 나가는 겁니다. 타 버리고 나가고 부서집니다.

모두 헬리콥터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난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건 왜? 양면이 동등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여기로 비유해서 정보국이라고 합시다. 정보국에서 정보국장이 하달을 해서 정보원이 어떠한 순찰을 돌 때에,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서

26면으로 계속

**시찰, 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 음향설비 렌탈· 각종 마이크· 스피커· 앰프 설치· 찬불가 반주기 설치 (550곡 수록)

현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4분할

TV, 컴퓨터 모니터로 시청하면서 녹화가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원미디어**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불상, 석탑, 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활동성: 활동성은 석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절반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산 수입 돌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익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철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 대한명인(06-122호)
- 현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상사 공로패 수상
-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교정수로
-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장사 역임
-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노동부장관 표창
-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 (사)불문화보총회 이사장
- 제9회 불문화보총회위원의 위원장

인터넷 블로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